

## 논문 개요

고도의 도시화, 산업화의 환경 속 공공 공간에 현대미술이 공존한다. 다양한 현대미술의 변화 가운데 환경미술은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자연 공간과의 친화성이나 혹은 도시 생활공간과의 조화로운 심미 활동을 강조하는 점에서 미래 지속적인 개념으로 주목하며 중요시하고 있다.

환경미술은 예술성과 대중성, 실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 실현 노력과 협동 봉사하는 태도를 기대 할 수 있다. 환경미술과 관련된 외적 설치물 등이 성격 형성과 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도시 속 환경이 익숙한 우리의 학생들에게 환경미술 교육으로 그 지역사회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생활 주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 뿐 아니라 생활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쾌적한 자연을 지키는 기본적 생활 자세를 배우게 한다.

그러나 환경의 개념이나 환경미술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나 학생들의 인지도는 매우 빈약하고 수업 활동 역시 혼란스러운 것이 학교 미술교육의 실태이다.

학교에서 학습하는 환경미술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성장과 생활 터전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윤택한 미래 사회의 환경을 위해 쾌적한 학습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활동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미술과 도시환경에서 공공미술의 역할을 알아보고, 미술교육의 개념을 이해하며 미술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의 현주소

를 제시 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도시화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공공미술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론에서는 공공미술을 이해하고 현대 도시에서 공공미술의 역할을 살펴보고자한다. 현대 도시에서의 공공 공간에 대한 의미와 공공 공간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공공조각이 도시환경과의 연계성과 도시환경의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고 도시환경의 역할과 조건에 대하여 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 제 7차 교육과정속의 미술교육의 본질과 필요성 그리고 미술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공미술에서의 도시환경과 미술교육의 접목으로 미술교과 속의 공공미술을 이해하도록 하고 제 7차 교육과정 속의 도시환경미술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한 본 연구를 통한 결론에서는 우리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소재로 삼아 생각하고 표현해보는 과정 속에서 공공미술과 도시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공미술과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다양한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주변의 미술과 도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시각을 키워서 나아가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갖도록 토대를 마련하여 보다 주변을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II. 공공미술의 이해 .....	4
1. 공공미술의 정의 .....	4
1) 공공미술의 개념 .....	4
2) 공공미술의 역사 .....	8
3) 공공미술의 제도와 역할 .....	11
2. 공공미술의 유형 .....	18
III. 도시환경에서의 공공미술의 역할 .....	27
1. 도시환경의 조형적 특징 .....	31
2. 도시환경의 역할과 조건 .....	37
IV. 미술교육에서의 공공미술 .....	42
1. 미술교육의 이해	
1) 미술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2) 제 7차 미술교육과정의 특성	
2. 미술교과속의 공공미술의 이해 .....	43

1) 공공미술교육의 이해 .....	44
2) 제 7차 교육과정 속의 공공미술의 성격 .....	48
3. 미술교과 속의 공공미술의 다양한 방향 .....	52
V. 결 론 .....	54

참 고 문 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미술 작품을 경험하곤 한다. 아파트 단지 앞의 조형물, 재미있는 문구와 디자인의 상점의 간판, 눈에 쉽게 띄는 도로의 표지판, 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벽화 등 공공미술은 확대된 미술의 영역과 미술의 수용자인 대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환경이 풍요롭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공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공공미술품이 설치되는 것이고, 건축물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정서를 반영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공공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살려 친자연적이고 친인간적인 환경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의식과 안목이 필요하다. 그 관심과 올바른 의식은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또는 교육에 의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미술교육에서의 공공미술의 방향성을 본 연구에서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sup>1)</sup>

도시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은 수많은 대중에게 전달되고 누구에게나 친근해질 수 있다. 또한 대중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공공미술 교육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 대해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적체험을 통해 이해하며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답게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살만한 도시를 위한 것으로 공공미술의 기능과 역할 및 가능성을 이해하고, 학생

---

1) 문미양,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시환경미술 이해교육 방안연구』, 2006.

들에게 도시의 미래를 이끌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학생들은 미술 교과 교육을 통해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즉,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쌓으면서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고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따라서 미술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미술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이 미술에 친근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미술은 여전히 학생들의 이해밖에 있다. 그것은 학생들이 공공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축물과 공공미술품과의 상호관계, 조형물의 적절한 공간의 확보, 조형물의 미학적 측면 등을 살펴보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줌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환경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고,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바로잡아 올바른 미적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미술의 유형을 조형성, 기능성, 협동성에 착안하여 조성성이 두드러진 것을 아름답게 보는 공공미술, 여기에 기능성이 갖춰진 것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공미술, 협동성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만드는 공공미술 즉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것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현 시대는 도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는 삶의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도시환경의 문화적, 미적인 중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도시 속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공공미

술은 환경을 주제로 혹은 소재로 하여 표현한 다양한 미술작품에서부터, 문화·사회적 환경과 시설, 의식구조, 생태, 생활양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형 예술이며 조각, 회화, 디자인, 건축, 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이러한 공공미술 속의 환경미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자연환경과 미술작품,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자연환경미술'과, 건축물이나 도시의 상징적 조형물, 총체적인 공간구성과 관련을 갖는 '도시환경미술'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화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미술을 정의, 분석해보고 그러한 공공미술의 테두리 안에서 '도시의 공공미술'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등 교육에서의 미술교과 속 공공미술을 논의해보고 현재 도시의 공공미술을 활용하여 도시 속 미술에 대한 미학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공공미술교육의 그 필요성과 가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Ⅱ. 공공미술의 이해

### 1. 공공미술의 정의

#### 1) 공공미술의 개념

‘공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sup>2)</sup>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공공’이라는 단어가 모더니즘의 출현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되어버린 ‘미술’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어 상호 모순된 개념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역사상 모든 미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나 근대 이후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 존재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것에 기반 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러한 예로, 서양에서는 광장의 탑이나 기마상, 교회나 성당의 프레스코 벽화 등이 있으며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승, 서낭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들이 놓인 장소, 기능,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열거한 ‘공공’의 의미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영어로 ‘public’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형용사형으로는 일반인과 관련되는, 일반인 소유의, 일반인을 위한, 일반인에 의한, 일반인에게 알려진 등으로, 명사형으로는 일반적 사회구성원, 대중<sup>4)</sup>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public)이라는 용어는 공동사회, 사회적 질서, 자기부정에 대한

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p.506.

3) 성완경, 「공공미술과 대중 참여」, 가나아트, 1996, 7,8월 호, p. 97.

4) A. S. Hornby,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pp. 686~687.

언급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이라는 용어가 예술에 적용된다면 결과적으로 구 사회의 관심들과 이익에 부하되거나 그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공공은 개인적 표현과 상충 하는 공공표현과 공동선의 이상들을 수반한다. 그러한 예술 작품을 공공예술이라고 한다.

공공미술(public art)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중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영국의 존 월렛이 1967년 『도시 속의 미술 Art in a City』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미술 디렉터, 큐레이터, 평론가, 컬렉터, 미술가 등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향유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서 공공미술을 고안하였다. 월렛은 혁명, 경제부흥, 도덕적 절제 등 사회적 필요에 부응한 예술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예술원에 재직하며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예술형태와 그것을 수용하는 관객들을 찾으려 노력한 인물이다. 공공미술은 기존의 전시장 속에 있던 미술을 전시장 바깥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특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요하는 작품’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작품이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소 일반 미술 (site-general art)’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공공미술의 개념은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에서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로, 도시계획 속 미술(Art in Urban Design),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로 전개되어 왔다. 건축 속의, 공공장소 속의, 도시계획 속의 미술은 각각 시대적, 개념적인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공공의 영역에 대한 개념을 미술작품의 설치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범주에는 브레너가 조각을 지각적, 경험적 방법으로 분류한 것과 로비네트가 설치환경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로서, 조각과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것과 건축의

공용공간에 미술이 설치되는 것에 의한 분류였다. 현재는 미술을 통한 커뮤니티 케이션 확대와 문화공동체에 중심을 두고 있는 커뮤니티 미술(Community Art)로서의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공공미술의 초기 개념인 건축 속의 공공미술(Art in Architecture)은 공공건물의 미적 장식을 의미하며 1980년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물에 조각이나 벽화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미술 개념의 두 번째 단계인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은 1967년 미국 국립예술진흥기금(NEA)은 자치단체가 지역 환경 개선에 공공미술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여기에서는 설치장소 개념이 공공건물에서 공공장소로 보다 확대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공공장소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민공원이나 광장 같은 곳에 벽화나 조각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의 공공미술은 모더니즘 미학에 기초한 미술작품을 크기만 확대하여 공공장소에 도입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sup>5)</sup>

세 번째 단계는 도시계획 속 미술(Art in Urban Design)이다. 이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개발이나 도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을 도시계획과정에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시애틀 시는 이전 단계의 공공미술이 도시를 정제된 야외 조각장이나 조각공원화 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공공미술은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고려된 공공장소들의 네트워크로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술가가 도시디자인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관행이 정책하게 되었으며, 달라스 시는 도시계획적인 구상 속에서 ‘공공미술종합계획’을 세우게 된다. 도시재개발에 공공미술을 결합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

5) 양현미, 「공공 근로 사업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p.24.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라데팡스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네 번째 단계인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은 기존 공공미술의 공공성의 개념과 구별되는 형식과 표현 개념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들로는 제니 홀저<sup>7)</sup>, 바바라 크루거<sup>8)</sup>, 한스 하케<sup>9)</sup>, 수잔 레이시<sup>10)</sup> 등과 성명 프로젝트 등의 여러 작가들로 구성된 몇몇 그룹들이 있으며, 이들이 쟁점화 하여 표현하는 이야기들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내에서 환경조각, 환경조형물, 건축물장식품 등으로 불려지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과 같이 미술이 미적인 오브제로 전락하는 관행에 대항하며 또한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은 1970년대 미국의 벽화운동<sup>11)</sup>과 1980년대 시카고의 공공미술프로젝트<sup>12)</sup>가 배경이 되어 1980년대 후

- 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1997, p.127~162.
- 7) 제니 홀저(Jenny Holzer)는 빛이 나는 문장 메시지를 공공장소에 보여주는 작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여성 작가. 1980년대에 강렬한 정치적 색채를 띤 자신만의 문장을 전광판이나 광고 매체를 사용해 도시 한복판에 선전했던 현대미술의 도발적인 작가이다.
- 8)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1945~))는 미국을 나아가 이 시대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로 사진과 텍스트를 결합하는 독특한 예술 형식을 통해 남성지배구조하의 사회적 편견에 저항해왔다. 크루거의 예술세계의 일차적 전략목표는 사회 내부에 침투해 있는 지배적인 제도적 권력에 항거하는 일이다. 그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미세한 권력 작용을 어떻게 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크루거의 전략은 70년대 미술, 특히 개념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 9) 한스 하케 [Hans Haacke, 1936~]는 독일의 화가. 광고 형식을 빌어 현실과 이상이라는 미술의 전통적 주제를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였다. 대표작 《마르셀 브로드테르스에 대한 경의》는 예술의 현실 비판을 보여준 전형적인 작품이다.
- 10) 1995년 수잔 레이시(Suzanne Lacy)가 공적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술을 공공미술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장소적 공공미술과 구분하기 위해 1995년 그녀의 책 <지형그리기: 뉴장르 공공미술 Mapping The Terrian-New Genre Public Art>에서 새롭게 제기한 용어이다. 그녀는 공공장소에 놓인 설치와 조각을 흔히 지칭해왔던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형식과 의도에서 모두 구분’하기 위해 ‘뉴장르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11) 『1970년대 주민벽화운동』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벽화를

반에 등장하였으며, 미술과 대중 사이의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공공미술과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흐름은 '장소 귀속적 공공미술', '지역사회에 기반 한 공공미술', '공공의 이해에 관심을 갖는 미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다가, 미술이론가 수잔 레이시가 편집한 『지형 그리기 (Mapping The Terrain)』 라는 책에서 '새로운 유형이 공공미술'이라고 명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요즘에는 이 명칭이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 하에 조성된 공공미술은 기념비적이고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술가, 건축가, 도시계획자와 같은 전문가 중심적이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보다는 도시미관이나 경관 중심적이라는 특성을 띠며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 2) 공공미술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 시대의 동굴 벽화나 암각화, 스톤 헨즈와 같은 고대의 거대 석조 작품과 신전, 중세 성당의 프레스코화, 스테인드글라스나 종교적 조각에서부터 근대의 기념 조각에 이르기까지 공공장소에 전시된 작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러한 작품들은 공동체의 집단적 성격에 기

---

만든 데에서 시작되었다.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벽화의 질보다는 벽화의 내용과 벽화를 만드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벽화를 만드는 공동작업과정은 그 자체가 지역주민 간의 토론의 장이자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주민벽화운동은 공공미술의 개념과 시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 12) 『1980년대 시카고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는 환경조형물을 세우는 식의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개념적이고 교육적이며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전환시켜 그 예로, 흑인 청소년들에게 비디오를 가르쳐 주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도록 기획한 '길거리 비디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여러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는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하여 발달하였으며 공공장소 즉, 광장 같은 곳에 설치되어 구성원 간에 집단적 가치를 매개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 작가의 의도는 중요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작가 자신이 공동체의 문화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현재의 공공미술로서의 목적과 그 취지는 벗어나 있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미의 공공미술로서의 시작은 현대 추상 조각의 유행과 함께 삭막한 도시 환경의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현대 건축과의 협력이 함께하면서부터이다. 현대 건축 미학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박스형 건물들 사이에 인위적으로 작은 광장이나 녹지대를 조성하고 그 속에 동일한 미학에 의해 거대한 현대 추상 조각을 끼워 넣는 방식이 점차 공공미술의 전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 벽화, 직조 예술 등 중세 이래의 통합적 건축 미술의 매체로 사용되어 오던 장르들도 현대 건축의 내외 공간에 새롭게 결합되면서 도시 공간에 시각적 즐거움을 더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까지 추상미술이 만연한 시기에는 작품 자체의 예술성 탐구에만 열을 올린 작가들이 주변 환경이나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작품을 제작하여 순수 미술의 특성이 너무나 두드러져 일반대중의 참여가 어려운 작품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공공미술은 도시의 공원, 건물에 설립된 환경조각이나 벽화 등 지정된 장소의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통적 공공미술이 공공의 개념을 장소와 관련시켜 작품을 만들고 소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수용자, 대중의 취향은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새로운 공공미술은 장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그런 의미에 맞는 작품으로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의 참여, 일시적 작업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 및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아트 프로

젝트 사업 등이 그러한 것이다.

공공미술의 발전은 1960년대 말 미국 정부에서 실시한 ‘미술을 위한 일정지분투자 프로그램’과 국립예술기금의 ‘공공장소의 미술 프로그램’ 두 가지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술을 위한 일정지분투자 프로그램은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건설 예산액의 일정 지분, 대개 1퍼센트를 예치해 미술품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국립예술기금의 공공장소의 미술 프로그램 역시 지역 사회의 공공장소에 전시할 미술품을 제작, 의뢰하고 구입하는데 드는 자금의 지원과 자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 주도의 미술 진흥 정책과 발맞추어 미술의 본질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1960년대 말에 일어났다. 많은 미술가들이 작업실을 떠나 작업실 규모보다 더 큰 건축적인 규모를 요구하는 데 지 미술과 그 밖의 다른 환경 미술 형태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복잡한 프로젝트의 완수라는 도전적인 상황으로 인해 작가들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작업실 안에서 제작의 전 과정을 혼자 관리하려는 태도를 버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념 하에 조성된 공공미술은 기념비적이고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술가, 건축가, 도시계획자와 같은 전문가 중심적이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보다는 도시미관이나 경관 중심적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도시 환경에 놓이는 조각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기존도시 생활에의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시도되어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기존도시의 재개발에 기여하는 미관적인 요소로서 시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단순한 목적으로서의 장식이나 미화를 떠나 근본적으로 도시환경에 영향을 준다.<sup>13)</sup> 따라서 환경조각은 공공미술로써 도시환경의 필수적 구성물로 등장하며, 설치되는 장소에 대한 특성을 부과하는 점에서 수적 구성물로 등장

---

13) 루이스 멍포드, 김문환 역, 『예술과 기술』, 을유문화사, 1975, p.148.

하며, 설치되는 장소에 대한 특성을 부과하는 점에서 '장소 특정적 미술 (Site-Specific art)'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이때 장소 특정적 미술은 주어진 특정한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설치 미술이나 장소자체를 위한 디자인을 포함한다. 공공미술이 포함하는 장소 특정적 미술의 범위는 야외 조각전을 비롯해서 지역공동체의 벽화 작업, 도로 포장, 거리가구(Street furniture)의 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 3) 공공미술의 제도와 역할

공공미술은 오늘날 현대적이고 차가운 도시공간에 다양한 색채나 형태의 변화를 통해 미적, 인간적 요소를 부여하며 도시인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회복시키고 정서적인 활력소를 제공하여 도시를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현실적인 문제(설치장소, 비용 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서 공공미술 후원제도에 대한 의미와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미술의 출발점이자 오늘날 대다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재정적 근간으로 삼고 있는 미술을 위한 퍼센트 법은 공공미술의 확산을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공공미술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모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공공미술의 질적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미술을 위한 퍼센트 제도」이다. 퍼센트 제도는 도시 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일정한 용도와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건축비용의 1%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

---

14) 양현미, 「공공 근로 사업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p.23.

도는 서구를 비롯해서 국내에는 건축미술장식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술작품들은 흔히 미술장식품, 환경조형물, 환경미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현대의 공공미술정책은 193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30년대 경제공황기에 실직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는 취지로 기획된 노동진흥청(WPA,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의 연방예술프로젝트(Federal Arts Project)와 재무부산하의 예술과(Section on Fine Arts)에서 이루어진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sup>15)</sup>

이러한 공공미술정책은 2차 대전으로 인하여 지속되지 못하다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의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Aipp, Art-in-Public Places Program)과 공공시설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AiA, Art-in-Architecture Program)'으로 대별되었다.<sup>16)</sup>

올덴버그<sup>17)</sup>의 1976년 작품<빨래집게 Clothepin>은 미국의 이러한 도시 공공미술 정책 하에서 제작된 최초의 모뉴먼트 작품이다. 올덴버그의 다른 작품 중 <야구방망이 Batcolumn>(1977)는 1972년 이래로 미국의 일반총무국(GSA)의 주관아래 미국 각지에 설치된 지방의 유명작가의 작품 200여점의 공공 기념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품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

15) 재무부 공공미술프로젝트는 공공건물 건축비의 1%를 할당하여 공공미술 설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 미술가들에게 공공미술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미술을 위한 퍼센트 제도(percent for art scheme)'의 모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6) 황선일,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3, p.35.

17) 올덴버그 [Claes Thure Oldenburg, 1929.1.28~]는 미국 태생으로 팝 아트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50년 말부터 1960년대 초에 오브제(object)가 관객과 일상적 환경 속에서 전개하는 일련의 충격적인 작품을 시도하였다. 일상의 오브제를 거대하게 확대하여 관객의 심리에 충격을 준다든지, 전기청소기나 선풍기 등의 경질기계제품을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로 모조한 해학적 작품을 전시하는 등의 발상은 그의 일관된 방법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 13조 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들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건축물미술장식제도에 관한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82년 문화 예술법상의 근거 조항인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 따라 1984년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작해 점차 지방 도시에까지 확산되어가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의 일부를 문화 예술품의 설치에 쓰도록 하고 있다. 처음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86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부터다.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문화적으로 세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작가를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퍼센트 법을 본 딴 것이다.

올림픽이 끝난 후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1995년 관련법령이 체계화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시행하여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고, 각 자치단체의 문화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물 장식제도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IMF 등 경제 위기 사태와 장기불황과 규제완화라는 흐름 속에서 논쟁이 뜨거워져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은 종전의 건축비 1%에서 1%이하(0.7%)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sup>18)</sup>

최근 2001년 개정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관련 문화예술 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미술 장식의 범위를 조형 예술물, 환경 조형물에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까지 확대하고, 미술 장식 심의위원회를 미술, 건축, 환경, 공간 디자이너, 도시 계획 전문가 및 시민 대표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넓히고 있다. 이는 공

---

18) 황선일, 앞의 논문, 2003, p.38~42 참조.

공성의 개념 확대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에 의해 설치된 작품이 공적인 장소에 설치된 작품인지는 몰라도 그 법의 운영과 작품 제작의 실질적인 과정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공미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제도와 주체간의 인식 결여로 공공성이 결여된 작품들이 여전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미술 제도의 각 나라별 특징을 보면,

- 미국
- 공공시설청(GSA) '건축 속의 미술 프로그램'
    - 건축비용의 0.5%를 공공미술의 제작에 사용.
    - 기금제 도입.
  - 국립예술진흥기금(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
    - 자체단체의 '미술을 위한 % 법'
    - 자치단체, 비영리단체에 신청자격 부여.
    - 작품제작비를 매칭그랜트 방식<sup>19)</sup>으로 지원.
    - 공공건물, 공공건설 위주적용, 일부 민간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
- 프랑스
- 건축물1%법
    - 공공건물, 공공건설의 비용의 1%를 미술품에 사용.
    - 기금제 도입
  - 공공미술주문기금
    - 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미술의 질적 수준 제고를 정책적으로

---

19) 매칭그랜트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하나. 임직원이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matching)시켜 내는 것을 말한다. 본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교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 교부세로 배정할 때를 이르는 용어로, 대응교부금(對膺交付金)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지원 위해 설립.

- 중앙정부가 설계비 지원.

한국 • 건축물미술장식제도

-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술장식에 사용.

- 건축주들의 저항으로 1%이하(0.7%)로 완화.

- 건축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적용대상 건축물 선정.

- 장식개념에 한정.

이상과 같이 공공미술은 건축 속의 미술에서 공공 공간 속의 미술로, 도시 계획 속의 미술에서 공공의 이해와 참여하는 미술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미술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미술이 포괄하는 범위가 개별 건물과 공공공간에서 도시 전체로 공공영역 중심에서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으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공급자인 미술가 중심에서 수용자인 지역주민 중심으로 강조점이 이동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구의 공공미술은 이러한 제도의 다양한 성과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변모과정 만큼이나 다양한 제도와 개념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공공미술정책의 전개는 정책 초기부터 지금까지 장식적인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미술계 내부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고급담론이 형성된 것과는 달리 제도적 현실과 정책실행은 공공미술정책 초기 건축물의 장식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문화적인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의 문화정책의 모방에 따른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행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공공미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문화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는 등 더 높은 수준의 공공미술환경으로 나가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미술의 작품의 설치로 인해 도시에 시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적인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공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공원의 역할과 흡사한데,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들의 환경 속에서 예술적인 조형물이 입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습관화된 시각의 피로와 권태를 덜어주고 심리적인 위안을 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발산하여 주변공간에 정적인 친근감을 주는 것이다. 수직적인 대형 건물이 있는 가운데 곡선적인 조형물이 설치되었다면 그것은 우선 시각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심리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점이 곧 어떤 공간에 뚜렷한 성격을 부여하게 되는 기본적인 요인이다.<sup>20)</sup>

이처럼 도시 공간 속의 작품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인상을 단순화시켜 정리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지역의 성격이나 개인,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혹은 공간의 지표 등으로 상징된다. 그리고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는 시민들에게 의식적인 차원에서 무의식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공감대를 형성시키어 공동체 사회로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시켜주며 공간의 성격을 선명하게 하거나 특징을 부여하여 스스로의 방향인식을 통한 존재감을 형성시킨다.

이에 작가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고취하며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제작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추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예술 환경으로 물리적 환경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주민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가 원천적으로 인간 문화의

---

20) 임영방, 「누구를 위한 환경조각인가」, 『계간미술』, 중앙일보사, 제37호, 1986, p.66-68.

소산임을 시사하여 문화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도시 환경의 수용자인 주민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처럼 주민 사회속의 공동체 공간의 사회적, 문화적 혹은, 정치적 의미를 새롭게 생산하게 되며, 공공의 새롭고 다양한 가치들과 이슈들을 창출시킨다.

## 2. 공공미술의 유형

공공미술은 야외 조각, 특정한 장소의 조각에서부터 지역 공동체의 벽화 작업, 대지 미술, 가로 포장과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예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한다면 환경 조각, 벽화, 보도 디자인, 건축물 내장 디자인 등으로 나누어지며, 장소를 중요시하여 조형물의 설치 위치로 구분한다면 바닥 경관-보도, 차도의 장식, 광장의 보도, 벽 경관-거리의 벽화, 건물의 외벽, 담장의 외벽 등, 천장 경관-스카이라인, 지붕 등으로 나눈다. 그 밖에 쓰이는 용도와 설치하게 된 동기를 중심으로 예술성을 중시한 사례-독자적인 예술작품으로서의 고공미술, 실용성을 중시한 사례-기능적인 공공미술, 의미와 상징성을 중시한 사례-기념적 공공미술, 지역사회 공동체적인 행위예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류 기준은 공공미술의 예술적 가치와 조형성 내지 심미성이 두드러진 것, 실제 사용할 수 있고 참여를 넓힌 기능성, 실용성, 효용성을 중심으로 한 것, 지역 공동체에 기반 하여 주민의 협동적 참여로 프로젝트 단위로 실행되는 것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공미술작품은 대체로 어느 한 유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으로,

첫째는 아름답게 보는 공공미술이다.

일반 대중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도시 환경에 활기를 불어넣는 조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미술작품을 뜻하는 것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조각, 벽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는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공미술이다.

조형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손과 몸으로 접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

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미술작품을 뜻하며, 의자, 가로등, 보도 타일 디자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는 함께 만드는 공공미술이다.

미술가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 특히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단위의 협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미술작품을 뜻하며, 도시 재개발 사업이나 지하철 프로젝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Ⅲ. 도시환경에서의 공공미술의 역할

공공미술은 현대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메마른 도시 공간에 다양한 색채나 형태의 변화를 통해 미적, 인간적 요소를 부여하며, 도시인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회복시키고 정서적인 활력소를 제공한다. 미술에 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시각적으로 보다 더 재미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할 수 있다. 공공미술품을 설치함으로써 도시전체 이미지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다.

삶과 유리된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고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일부로서 미술에 대한 의식이 표현화 된 것은 '환경미술(environmental art)'의 논의가 시작된 1960년대 말부터이다. 도시의 시각 환경을 형성하는 공공조각이나 대형건물의 벽화가 하드웨어 환경미술이라면, 동시적인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백남준(1932~2001)의 비디오 위성중계는 소프트웨어 환경미술이다. 또한 문화현상의 정치, 경제적 배경을 예시하는 한스 하케(Hans Haacke, 1936~)의 작업이나 작품제작으로부터 사회운동에 이르는 사회 속의 삶 전체를 예술로 삼는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86)의 사회조각(social sculpture)은 사회학적 환경미술이다. 특히 보이스 같은 이는 녹색당을 창설하고 환경운동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다.<sup>21)</sup>이처럼 환경미술은 예술가들마다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 개념 정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캐린 토마스(Karin Thomas)에 의하면 환경미술은 '공간의 미적인 형성 또는 형성하는 공간 속에서 보는 사람의 성찰능력과 연상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잡다한 소재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각종의 기법을 구사하여 이용되는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

21) 윤난지, 『현대미술의 풍경 - 환경, 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예경, 2000, p.59.

다. 그리고 환경미술은 본질적으로 예술과 삶, 예술가와 관객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시도함으로써 무릇 대중을 지향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알란 카프로우(Allan Kaprow)는 '촉감, 소리, 심지어는 포함한 주변에 있는 온갖 소재들로 관객 주위의 실내 공간 또는 옥외 공간에서 구성하는 미술'을 환경미술이라 말한다.<sup>22)</sup> 게이츠켈(C.D. Gaitskell)은 환경미술과 관련된 개념을 '각 시대를 통하여 개인적인 환경과 서로 공유하고 있는 환경을 확립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 환경미술을 활용해 왔다. 미술경험은 이러한 환경의 시각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개선시킬 능력과 요구를 갖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혹은 환경미술을 '도시의 산업화와 도시공간이 팽창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실된 자연 공간에 대한 인간의 미적 공간을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파생한 미술'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 때 도시 공간에 설치되는 환경미술은 장식적 요소로서의 기존 건물이나 공간을 꾸미는 부수적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방법으로 현대적 의미의 환경 조형물은 조각 작품뿐 아니라 호화, 슈퍼그래픽, 가로편의시설 등 현대 도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존재 형식을 취하며 특정 목적이나 기념물로서의 고대나 근대의 그것들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sup>23)</sup>

주위의 환경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며 복합적인 도시의 모든 조형물은 다양한 환경과 사회상에 맞추어 창의적인 표현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을 창출한다. 또한 진보된 과학 기술과 과잉된 정보산업사회로 거대 도시화 현상과 비인간화에 따르는 피해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성 회복에 의한 인간적 공간을 추구하게 된다. 이에 환경 미술은 산업화로 파괴된 자연과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미건조하고 개성 없는 도시 경관을 새롭게 환경 친화적으로 복원하고

22) 배정환, 『환경미술에 대한 연구』, [http:// 1point.co.kr/report/text4.htm](http://1point.co.kr/report/text4.htm)

23) 장태현, 「도시의 광장과 환경조형」,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 제8호 1999. 8, p.35.

자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고립되고 갇힌 사적 공간의 예술로부터 탈출하여 열린 공적 공간의 확대 속으로 예술을 개방하자는 것이며 일상공간과 예술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미술은 자연 환경, 문화적 · 사회적 환경과 시설, 시민의 의식구조, 생태, 생활양식, 도시차원의 미화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리고 조각, 회화, 디자인, 건축, 공예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조형예술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건축물이나 도시 환경과 관련을 갖는 미술로 삭막한 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회화 · 조각 등의 상징적 조형물을 포함하여 건축물과의 총체적인 공간구성을 목표로 하는 작품들을 일컫는다. 둘째로는 자연 환경과 관련을 갖는 미술로 자연환경과 미술작품, 나아가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을 하고 드러내려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로 나타난다. 열린 공간에서의 작업을 지향하고 미술 작품이 도시 환경이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며, 그 환경적 요소들을 작품의 구성요소로 끌어들이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리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의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면서 각종 표지판이나 그림타일, 벽화 등 여러 가지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환경 미술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거리공간 속에 시설물이나 멋진 디자인이나 작품들이 생기면서 도시는 황량하고 삭막한 공간 대신 풍요롭고 생기 있는 환경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

도시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벽화나 조형물 등 공공미술은 무미건조한 도시에 표정을 불어넣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을 즐길 기회를 준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의 건강한 힘과 순수한 상상력으로 참여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기회도 갖게 되어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건축물의 외벽의 이미지는 건축물을 대표하며, 각양각색의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도시의 건축물들이 도시환경을 일률적이고 삭막하게 만들고 있다. 건축물은 다른 공간보다 거대한 크기를 갖거나 다른 공간보다 독특한 공간적 특성이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외벽 뿐 만아니라 도시의 고가도로 밑이나 거리,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의 시설물 등에 벽화를 그리거나 조경, 공간디자인 등으로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 도시 속에서 삶의 일부가 되는 이러한 환경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적 발상보다는 도시의 성격, 도시의 기능, 도시민의 생활을 반영하는 내용의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도시 환경을 구성 하는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해야만 시민과의 교감이 풍부한 도시 문화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술을 통한 도시 공간 문화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미술의 입장에서 환경조형물, 또는 공공조각이 도시환경과 맺는 관계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지표의 기능이다.

도시의 조망이나 하나의 초점 및 교차지점이나 광장의 중요 표식으로서 지표(Land Mark)의 기능을 한다.

둘째, 공간조절의 기능이다.

도시의 비인간적 스케일을 완화하며 인간 척도의 인식단위로 전화하는 동시에 그 도시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단계적 공간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조절의 기능을 한다.

셋째, 예술체험의 기능이다.

도시 공간 속에서의 심미적, 정서적 즐거움과 함께 예술체험의 경험을 가져

다준다.

넷째, 지역사회의 독자성이다.

장소와 지역사회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을 높여주고 매력을 불러 일으켜 활동성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부심 고양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 1. 도시환경의 조형적 특징

인간은 자연과 도시의 여러 가지 인공적 환경이 이루는 다양한 공간에 반응하면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쾌적성과 감성적 요소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과 인공적 환경들이 아름답게 디자인 된 도시환경이다. 잘 디자인된 도시 환경은 인간성이 존중되고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품위를 높이는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조화롭게 잘 형성된 도시환경은, 인간에게 휴식을 주고 인간의 정서에 해방감을 주는 공간이 된다.

도시공간은 자연의 기본환경 속에서 그 여건과 함께 최선의 경제적인 형태를 취하여 만들어낸 인공물로 형성된 공간으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인간생활과 도시환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시공간은 인위적 환경이며 건축된 환경이 된다.<sup>25)</sup> 도시환경은 인간을 축으로 둘러싼 모든 환경의 여건과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형태와 기능에 있어 일련의 체계를 요구한다. 이러한 도시의 외부환경 조형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이다.

현대도시의 생활환경은 복잡하며 시민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

24) 서상우, 「건축과 환경조각」, 목원대 조형연구소 학술지, 1999.

25) 양희태, 『환경공간과 조각』, 낙우사, 1986, p68~69.

형이 복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경과 생활상에서 유형의 종류는 증가되며 경향은 점차 다양화된다. 도시 외부환경에서의 조각은 복합화 된 현대 환경의 특성에 따른 조형적 가치와 개성이 있는 다양화가 가능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 외부환경에서의 조각은 형태의 평가영역에 있어서 특정한 미의식과 일정한 시각적 질서에 의존하여, 여러 가지로 조화 있게 구성된 감흥의 상태로서 가치 있는 미적 경향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복잡한 현대도시의 환경과 사회상 그리고 다양한 현대인의 생활양상과 심리에 순응하며, 현대도시에 있어서 외부공간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창의력 표현과 새로운 환경의 창출로 시각질서에 의한 다양성과 다원적 가치추구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다.

둘째, 단순성이다.

복잡 다양한 현실상황은 필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 환경에서 명료하고 단순하며 새로운 의식의 시각 형태를 요구하게 만들었고 가치평가의 기준을 변화시켰다. 이는 시대의 변화가 가져온 필연적인 현상이다. 또한 규격화에 의한 대량생산은 생산방식의 획일화를 가져왔고 이는 대량생산은 생산방식의 획일화를 가져왔고 이 획일화된 양식에서는 우수한 기능만을 위주로 하여 기능에 방해가 되는 요소인 불필요한 장식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인의 정신적, 물리적 요인에 따라 인공 환경의 요구들은 시각적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우리의 환경은 단위물의 단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다종의 결합에 의하여 복합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 복합성에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현대인에게 있어서 갈수록 단순화해지려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서 단순한 형태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물상적 현상과 관계되는 시각 형태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물상적 현상과 관계되는 시각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는 단순하여도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라면 그 느낌은 단조롭지 않고 흥미로우며 의미있는 예술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도시의 산업발전으로 인한 복잡한 구조와 외부공간의 잡다하고 산만한 무질서에 대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되는 현대인의 단순화에 대한 희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그 시각적 욕구를 외부공간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성이다.

현대와 같은 고도산업사회는 무질서한 과대도시가 되어 비인간화와 정신적 황폐 등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생활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원하는 것은 현대인의 간절한 소망이다. 현대의 인간은 자연 속에서 인공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교통문제, 에너지, 주택문제, 건축계획, 환경공해 등 극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육체적 심리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무정형의 세계 속에서 인간존재가 상실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간존재의 상실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도시의 차갑고 거대한 공간에 대한 심리적 차원에서의 인간화 작업에 충실해야 한다. 도시 외부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나무, 돌, 물, 기물, 조각 등 자연과 예술에 의하여 인간적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더욱 깊은 인간과의 대화를 인간답게 나눌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전달성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우선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어떤 형태나 색채에는 일종의 시각적 저항이 생겨서 긴장, 힘, 중량, 생명감과 같은 시각역학이 발생한다. 또한 형태 자체에도 시각역학에서 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공간에 한 개의 형태가 놓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주위와 공

간영역이 형성되고 고양되어, 하나의 가상의 세계로서 통합되면 예술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의미의 전달과 이해는 직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신에 담긴 의미를 형상으로 승화시킨 것이므로, 하나의 시대적 공간은 항상 그 시대의 정신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다섯째, 쾌적성이다. 사람이 사는 환경은 인간의 지각적 욕구를 충족 시키고 지각에 안전성을 부여하며, 적절한 변화 속에서 사람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여미를 느끼게 하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휴식공간과 부담 없는 대화의장, 혼자만의 사색의 공간과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 등의 복지환경을 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공간구성이란 인간의 정서에 자연스럽고 안정되며 쾌적한 분위기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서 각 개인의 지각작용은 만족스러운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지각상태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존속을 계속하는 한 지속되는 것이다. 조형이란 순수하게 또는 주변공간과 형태가 상호관여 되면서 특성 있는 총합공간을 형성하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성격의 쾌적함을 제공한다. 도시의 외부환경은 누구나가 항상 동일한 입장에서 활용하는 장이며 이 공간을 어떻게 생생하게 활성화하여 즐겁고 쾌적하며 가치 있는 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체성이다. 도시 외부공간의 조각에 있어서 현대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환경과 조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점에 있다. 외부환경 작품은 조각이나 건축 도는 그 모든 구조물이나 기물 간의 대립이 아닌 새로운 상호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어느 한쪽에 종속하거나 단순한 장식으로 그치지 않고 독창적 환경어휘로서 보다 의미 있는 공간창조를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 외부환경의 조각은 단순히 공간속의 조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환경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며, 그 특징은 합일체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오는 자율성

과 통합된 의도적 공간에서 오는 견실함과 솔직함에 있다. 그리고 부분의 속성이 전체적 연관성에 종속되어 전체 효과에 순조롭게 기여하도록 하는 다차원의 원리를 적용하여 도시환경 자체를 조각화 된 공간으로 새롭게 연출해야 한다.

이상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현대 도시 외부공간은 그 도시 환경상황의 다양함, 복잡함 그리고 기계화에 대한 순응이나 대응 또는 회복의 반응현상을 나타냄으로서 환경의 구조에서 오는 다양성, 물리적 경향에 대한 단순성, 기계에 상반되는 인간성을 표출한다. 또한 도시생활의 인간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보사회에서 소통하려는 의지로서의 표현의 전달성이 있고, 무질서한 불안에 대응하는 복지욕구로서의 쾌적성, 그리고 심미환경에 대한 희구와 함께 시각공해에 대응하는 독창적인 환경 창작의욕에 대한 총체성을 들 수 있다.<sup>26)</sup>

도시공간은 인위적 환경으로 어떤 조형적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조형적 요소를 할프린(Halprin)<sup>27)</sup>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공공공간으로서 가로, 공원, 광장 그리고 스카이라인을 말하는데 조경을 위한 조형성으로 도시의 성격과 격조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요소이다.

둘째, 구조물로서 건물, 육교, 지하철 교량이며 이것들은 또한 다양한 구조와 소재로 형성되어져서 인간직감에 비추어 공공공간보다 조형적 체험을 깊게 하여준다.

셋째, 도시의 시설 및 가구로서의 옥외조각은 조경요소인 물, 수목, 생물 혹은 가로상의 표시와 상징, 전화상자, 버스정류소 등이며 섬세한 조형감각을 시도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넷째, 움직이는 요소로서는 연(kite)이나 가구, 구름과 새, 야경, 자동차, 사람

26)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1990, p25.

27) 로렌스 할프린 (Lawrence Halprin . 1916~) 은 기능이 죽은 도시를 환경 파괴 없이 도시를 재구성함으로써, 도시를 친밀하고, 활기차게 즐기고, 창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데 '인간행태'를 적용(Motation수법)한 조경설계가이다.

들의 움직임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도시의 생동감을 구성하는 요소라 하겠다.<sup>28)</sup>

또 다른 분류로서 에크보(Eckbo)<sup>29)</sup>는 첫째, 건조물-건물, 가로, 광장, 도로, 하이웨이, 주차장, 그리고 지하의 제 시설, 둘째, 보행자만의 자유공간, 셋째, 자연-지형, 바위, 식물, 물로 나누었는데 도시화 과정에서 첫째 요소가 극대화되고 둘째 요소가 최소화되며 셋째요소는 거의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조형요소는 유용성 즉 목적을 가지고 발달해 왔는데 그 복합적 기능에 조형적 폼(form)이 내재됨으로서 도시공간을 미화하게 된다.<sup>30)</sup>

이제 우리는 도시환경의 조형적 특징을 체계화하여 외부환경의 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도시의 외부 공간구성이나 경관, 가로의 구성이나 기물, 광장이나 휴식공간의 특성으로부터 전개되는 옥외생활의 현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보행자 환경이나 외부 휴식공간에 대한 향상이 요청되고 있다. 외부 환경공간의 소유가 누구이든시간에 결국 시민의 공유재산이며 이용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인 시민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도시공간에 시민이 시각적으로 직접 조형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환경조각이 요구된다. 그래서 조형표현의 현장을 화랑이나 박물관 등의 닫힌 공간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외부로 끌어들냄으로서 보다 다양한 조각적 표현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변공간의 환경화 즉, 기존 건물이나 구조물 잔디나 나무 등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환경조각의 보다 폭넓은 공간소유를 시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의 대중과의 접촉을 통해 환경조각에 대

---

28) Lawrence Halprin, 최창환 · 서의택 역, 『Cities』, 1963, p. 8-9.

29) 에크보(Eckbo, Garret)는 근대미술, 근대건축에 대응하는 근대주의 조경설계양식(아방가르드 조경)의 창시자인 작가이자 이론가라 할 만하다. 단 카일리, 제임스 로즈와 같이 하버드 설계대학원 재학시 전근대적 설계교육(포멀리즘 대 인포멀리즘으로 한정된)에 대항해서 벌인 모더니즘 운동(소위 '하버드 혁명'으로도 불림)은 근대주의 조경설계가 시작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30) Garret Eckbo, 김장수·윤정섭·이종필 역, 『도시조경설계』, 1975.

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문화적으로 보다 풍요롭게 하고 있다.

## 2. 도시환경의 역할과 조건

일반적인 장소의 개념은 '일정한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한정된 범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일반적 공간은 그 사람 또는 집단의 행위와 경험 및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식과 결부되었을 때 특정한 장소(Place)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의 공간을 장소성 (Placeness)이 부여된 공간이라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는 인간의 의도와 자연 질서가 융합된 것이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 체험에 관련되는 의미 깊은 중심이다. 또한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으로 획득되기도 하고 장소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얻기도 한다.<sup>31)</sup>

장소의 환경은 산업혁명 이후 물질문명의 과다한 발전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에 따라 도시 형태는 무미건조하고 비개성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도시의 급격한 팽창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가져왔고 획일적인 빌딩과 회색의 삭막한 양산된 거리풍경은 도시인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정서적 불안감을 주게 되었다.

도시 공간은 생활환경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이라 볼 수 있는데 도시공간의 과밀화 현상으로 보존되어야 할 공공 공간은 점점 잠식되어 삭막한 도시공간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됨에 따라 사람들은 질적인 생활의 향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 중

---

31) 이규목,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4권 1호, 1988, p.40.

가장 큰 관심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이다. 최근의 산업 추세와 생활수준의 향상, 인구의 급증과 대형도시화 등 현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인들이 생활공간 속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여가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결코 메마른 건조한 삶만은 아닐 것이다. 환경조각은 이처럼 실존하는 공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 조형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도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생활하는 곳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쾌적하게 효율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개인의 취미 경향이나 일시적인 경제 가치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의 역사관이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를 향한 배려가 포함된 주위 환경에 맞는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예술적 감각을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미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환경은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이고,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과 여러 가지 재료, 규모, 여러 가지 형태들의 시설들이 혼합되어 도시환경을 형성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혼재되어 있는 양상들의 도시환경이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적 이기와 경제의 논리로 개발되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정서적 환경으로서의 도시, 감성적 요소와 자연환경의 합일체로서 문화적 환경을 이루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는 사람들의 삶, 문화, 정신, 역사, 희망, 꿈 등을 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 환경을 풍요롭게 하여 장소를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둘째, 일반 대중이 미술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하나의 건물이나 공동체를 통합하고 정체성을 강화시켜준다.

넷째, 도시 환경의 수용자인 대중을 새롭게 이해한다.

다섯째, 도시 환경의 새롭고 다양한 가치들과 이슈들을 창출시킨다.

여섯째, 도시, 국가, 기업의 미술투자를 증대시키고, 미술가의 영역을 넓혀준다.

이렇듯 도시환경이 아름다우면 일종의 흥미를 끌 수는 있으나 도시환경이 그것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시환경을 아름다움의 범주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성향과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단순하고 일정하게 규격화된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 분명한 것보다는 다의적인 것을, 간단한 것보다는 혼합되어 복잡한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변형과 조절이 가능한 것을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포함하여 도시환경을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정리하면,

첫째, 실생활을 표현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인 형태와 주제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최소한의 생태적 영향과 대지가 지니고 있는 안정성과 일치해야 한다.

넷째, 교훈적이고 유익해야 한다.

다섯째, 형태는 예술가들이 하는 것처럼 점, 선, 면, 질량과 공간 등 시각적 관계에 관련되고 이것들은 예술적 표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시각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체도 하나의 완결된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거리의 간판이나 구조물인 다리, 육교, 보도, 가로등, 의자, 표지 및 게시판 등에서도 좋은 조형적

요소를 발견하여 시민들에게 미의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쾌활한 도시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따른 환경 미술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현대에서는 그 인식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환경조형물은 도시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도시환경을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더욱 향상시켜 그 정신적 차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도시 공간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활동의 터전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미학적 측면에서 공간 디자인의 시도는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파리의 라데팡스, 바르셀로나의 구엘공원, 도쿄의 롯본기힐 등 공공 공간에 도시 환경적 설치 작품이 도입됨으로써 공공 공간의 질이 높아진 사례는 무수히 많다. 파리의 라데팡스는 도시 계획에 미술을 결합한 경우로서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면서 공공기관과 미술이 만나게 하였다. 바르셀로나의 구엘공원은 계단, 벤치, 난간 등 공원의 시설물 전체가 도시 환경적 설치 작품이다. 도쿄의 롯본기힐은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된 사례로서 벤치와 정류장을 미술가들에게 의뢰하여 기능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거리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공적 영역으로서의 미술은 도시, 지구, 거리 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 의해서도 채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공공 공간의 미술 작품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도시의 맥락과 도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미술 작품은 단순한 장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바로 대형 건물 앞의 미술장식품들이 그것이다. 일부 건축물 미술장식품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공공 공간을 활성화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 빌딩 앞의 프랭크 스텔라의 '아마벨'은 유리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만으로 세계적 철강회사 포스코 센터의 건축미를 구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마벨'은 이러한 뛰어난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설치될 당시부터 거친 외형과 규모, 기괴한 모양이 흉물스러워 철거논란을 일으키다, 현재는 나무로 가려져 그것의 형태를 제대로 관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뉴욕 맨하튼의 연방청사광장(Federal Plaza)에 1982년 설치되었던 리차드 세라의 'Tilted Arc' 역시 주변의 통행을 불편하게하고, 시야를 가리며, 대중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한다는 의견 속에서 1989년 철거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 환경속의 공공 미술은 주위 환경의 고려, 대중의 반응에 대한 예측보다는 예술가 혹은 기업주의 권리와 믿음에 의존하여 설치된 작품은 분명 공공미술로써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예술은 분명히 미술관, 갤러리의 예술과는 구별되어 다분히 대중적이어야 하기에, 대중의 다양한 경험과 교감을 고려하며, 친환경적인 형태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적절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도시의 기능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이 미적 느낌과 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환경이 기술적, 기능적, 미적인 면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최대의 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환경의 미적 표현이 필요불가결한 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IV. 미술교육에서의 공공미술

### 1. 미술교육의 이해

#### 1) 미술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교육은 바람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작적인 기능을 지니며, 단순화 지식의 축적이나 기술의 습득만이 아닌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전환시키는 작용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인격을 형성하는 작용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위한 계획적인 변화'<sup>32)</sup>라 한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미술 교육을 보면, 학생들의 감성과 사상을 상징적으로 작품화하여 나타내는 외형적인 활동인 '표현활동'이 있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여 감정이입을 통해 향수하는 '감상활동'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술과 교수와 학습에서는 이 두 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 중에서 인격적 발달에 유익한 요소들을 선택하여 그것을 미술교육의 내용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sup>33)</sup>

미술교육은 미적 체험을 통하여 대상이 가지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각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표현된 작품에 공감하는 미적 향수에 이르는 일련의 직접적 체험의 과정이다. 미술에서의 사상과 직관과 감정은 교육에서의 인간 존엄성 및 주체성과 통하며, 창조나 가치는 잠재가능성, 가변성 및 진보와 통한다.

---

32) 오은경, 「미술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p.7.

33) 김상량,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1998, p.16.

또 미술에서의 조형형식은 교육에서의 계획 즉 질서 및 합리주의와 통한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전일체로서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미술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미적 인간, 심미적 인간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름다움을 잘 느끼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면, 심미적인 인간 육성에 미술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미술교육은 미술품에 대한 지식이나 미술적 유산 또는 문화적 유산적인 요소와 형태가 어떻게 변형, 변화되어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성, 공존성, 융합, 전개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작가들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없이 보고, 생각한다. 또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창의적이고 고유한 표현은 작가의 작품성과 작품내용, 비법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며, 더불어 우리가 놓여 있는 위치와 문화적, 사회적인 요소들을 접목시켜 생각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생들은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한다. 이러한 제작활동을 통해 관찰력, 사고력, 직관력, 상상력, 지각력, 표현력, 창의력 등 미적 정서와 미적 능력 등이 계발되고 열린 사고를 지향하게 된다. 또한 제작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은 미술에 흥미를 갖게 하는 또 다른 동기 부여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아만족으로 이어져 학생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미술교육은 다른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관찰하도록 이끌며, 추상적인 사고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상징성과 의미성을 갖는다. 미술교육에 있어 창의성은 주로 활동과정에서의 개개인의 생각이나 자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의 유연성, 모험성, 고유성, 다양성, 독창성을 의미한다. 미술활동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열린 사고는 지각력 외에 학생 개개인의 느낌, 인식, 의도, 상상력 등 학생 개인의 모든 것

이 포함된다. 이러한 열린 관계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경험을 넓혀주며, 관조와 직관력 등을 길러줌으로써 참된 자아세계를 표현하게 한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술교육은 아동중심 미술교육, 또는 학과중심 미술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제 간 교육, 다문화 미술교육, 미술관교육, 미학교육,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학문기초 미술교육 운동)등 다방면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보자면,

첫째, 미적 안목의 육성으로 '안목'은 선택과 분별의 능력은 현대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가치로 특히, 세상을 미적으로 바라보는 눈, 미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미적 안목'은 미술을 이해, 감상, 비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적용이 된다. 체계적인 미술교육을 통해 조형적이고 심미적인 미술 작품을 제작하고 미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감상, 비평과 함께 삶 속에서 보다 미적인 것을 추구하고 즐길 줄 아는 미적 안목을 갖출 수 있다.

둘째, 조형능력의 함양으로 조형능력은 '형을 만들 수 있는 힘'으로 시각화, 공간화, 조형화하는 미술과 관련이 된다. 미술교육은 단순한 묘사나 손재주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 느낌 등의 개성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조형능력을 키움으로써 창의적, 사실적인 미술작품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한 자연과 인공의 모든 환경에서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능력과 미적으로 이해하며 개선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셋째,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창의성 계발이다. 미술 활동은 창의성을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활동에 가담하도록 해 준다. 창조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익히며, 직접 다양한 미술활동에 참가하여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은 바로 창조적 예술 활동의

경험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하여, 상상력과 경험을 자극하여 단계적으로 표현하게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미술교육의 내용을 잘 선정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를 할 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창의성은 효율적으로 계발될 수 있다.

미술교과는

첫째, 생활 속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며,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둘째,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주고, 주제,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활동과 능동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술품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한다. 또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

여러 학자들은 미술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김춘일(金春一, 1942~)은 미술교육의 목적이 어린이의 창의성, 미적 정서, 조형성 기능을 기르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창의성, 정서성, 조형성으로 요약되는데 미술교육의 목적이 미적 경험의 특성에서 추출된다고 보고, 미적 감각과 가치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미술 경험'에서 어린이의 인격적 발달에 유익한 본질로 창의성, 정서성, 조형성을 꼽고 있다.<sup>34)</sup>

피셔(E. F. Fisher, 독일)는 미술교육, 또는 미적 교육에서 미술에 대한 반응

---

34) 김춘일, 『아동미술론』, 미진사, 1985, p.35~38.

과 제작, 미술 감상의 세 활동을 통해 길러야 할 사람을 '미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으로 보고 다섯 가지 목적으로 제시한다. 미적 지식, 환경에 대한 감수성, 인간애, 지각적 개념의 고양, 미적 판단으로 미적 인식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sup>35)</sup>

따라서 각 학자마다 그 견해는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미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예술을 통한 조화로운 인격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현대미술교육을 통해 미적 인간성 육성을 돕고, 이를 통하여 과학 기술 시대에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2) 제 7차 미술교육과정의 특성

미술교육은 미술가를 길러내는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미술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이해교육에 더 가깝다. 이해교육이 미적 안목을 높였을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미적 안목이나 미의식은 식별력, 분별력, 즉, 가치판단을 동반한다. 시 지각에 의해 대뇌에 접수된 대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면 그것이 기교에 의해 가시적으로 형태를 이룸으로써 미술이 가능해진다.

그러한 가치판단은 수많은 것들의 방향을 받아 이루어지며, 그 가치판단은 미의식에 의해 잘할 수 있는 눈이 미적 안목인 것이다. 미적 안목은 미술표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술을 이해하는 데에 미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물론이고 우리 삶속의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도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미적 안목으로 수많은 대상들을

---

35)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000, p.32~33.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시각적 현상 속에서 의미 있는 미적대상을 발견하는 일로부터 미술적인 것을 선택하고 개선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된다. 이러한 미적 안목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바로 미술교육이다. 미술 소비자를 기르는 것이 중등미술교육의 방향이라면 미술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미적인 것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적 안목에는 환경 속에서 미적 대상 발견하기, 미술작품을 조형적이고 심미적으로 제작하기, 미술을 바르게 이해하기, 자신의 환경 속에서 미술적으로 개선해야할 대상 찾기, 환경을 미적으로 개선하기 등의 능력이 포함된다. 이를 위하여, 미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미술지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미술교육감상이 강조되어야 한다. 미술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지도과정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경험, 충분한 참고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체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술교육과정은 미술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이고, 교수학습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며 평가 되는가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그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개정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제 6차 미술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체제를 세우고 미술과 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인적 성장의 바탕 위에 개성을 지향하는 인간, 전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 전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 기초 능력을 토대로 개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직업적 과업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미술과의 특성을 살리는 가운데 제 7차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정신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미술과 교육 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 6차 교육 과정 개정의 중점 방향으로 제시되었던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교과 성격을 더욱 강조하도록 한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 첫째,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도록 한다. 둘째, 미술과 학습 내용에서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셋째,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를 반영하며, 나아가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미술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한다. 다섯째, 미적 감수성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감상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며 효율적인

교수 · 학습을 위하여 교수 · 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미술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간의 상호 비교가 안니 계획된 학습 목표에 비추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는 개별 학생들에게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시한다.<sup>36)</sup>

이에 바탕으로 미술과 목표를 살펴보면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미술과의 총괄목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인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로 제시하고 있다.

미술과는 미술활동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미술활동의 구체적인 형태인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은 창조적인 표현능력 및 감상능력이다. 또 표현활동에서의 발상 및 표현과정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즉, 창의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과정과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다. 독창적인 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형성을 도와주는 것은 또한 미적체험과 감상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미술활동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인식, 미술에 대한 긍정적이며 존중하고자하는 태도 등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고자 한다. 이렇게 미술과의 총괄목표는 표현 및 감상능력, 창의성, 심미적인 태도로 설명될 수 있다.

미술과의 총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학교 미술과의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하위목표는 미적 체험 영역에 관련된 것이면서 동시에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즉 서로의 작품 뿐 만 아니라 미술품을 보고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며, 미술 문화

---

36) 교육부 p. 46~48

유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sup>37)</sup>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먼저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 즉, 생활에서의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이다. 세부내용으로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형물의 특징을 파악한다. 생활에서 미술의 역할에 관하여 토론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우리 생활환경 주변에 펼쳐진 자연과 조형의 세계가 지니는 아름다움을 관찰을 통하여 발견하고, 자연과 연관된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구성하고 있다.

자연 환경에서는 동물, 식물, 광물, 자연물이 지니는 형태, 움직임, 색깔 및 질감 등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현상 등이, 조형물에서는 미술품, 환경조소, 조경, 건축물, 실내장식 뿐 아니라 다양한 공예품, 생활용품 등이 각각 지니는 특징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의 '사'항을 보면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감상 관점을 선정하여 활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관점을 '선정하여'는 바람직하게 표현하면 '관점을 개발하여'로 제시하는 것이 본질적일 것이다.

미술작품의 감상 관점은 주어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특히 학생 스스로가 찾아내어 적용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는 것이 미적 지각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7) 교육부, p. 59~60

## 2. 미술교과 속의 공공미술의 이해

### 1) 공공미술교육의 이해

공공미술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사고의 확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미술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보고 생각하는 미술의 참 모습과 방법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7차 미술 교과에서는 생활 세계에서의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이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 주변의 조형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계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서의 생활 주변은 학생 가까이 있는 생활공간을 뜻하는데 학생의 공간인지 능력의 발달에 따라서 집, 학교, 자기 고장에서 다른 고장 등으로 넓혀지기 때문에 공간의 확대에 따른 생활 속 미술이 교과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술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속 미술이 아닌 스튜디오 미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튜디오 미술은 작가주의에 기초하여 제작되고 화랑에 전시되는 작품을 말한다. 스튜디오 미술은 생활 속 미술에 비해 학생들로부터 친근한 대상이 되기 어렵다. 결국 학생들의 생활과 유리된 미술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활 주변의 조형물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흥미와 관심, 애정을 갖도록 하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공공미술은 스튜디오 미술과는 반대로 학생들로부터 가까운 거리, 열린 공간에 있는 생활 속 미술이다. 학생들은 일생 생활의 주변에서 다양한 공공미술을 접할 수 있다. 건물 앞의 조각, 벽면에 화려하게 장식된 벽화, 거리의 디자인과 같은 공공미술은 학생들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술과 달리 눈으로만 감상되지 않고, 생활면에서 접촉되고 이용된다. 따

라서 학생들은 공공미술을 통해 생활과 미술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미술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된다.

## 2) 제 7차 교육과정 속 공공미술의 성격

오늘의 미술교육은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 등으로 구분된 범위 안에서 각 영역의 개념을 지식으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학습에서 변화 발전하여 조형 활동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생활과 더불어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계발하고 이를 향유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미술과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첫째,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 7차 미술 교육과정은 미술과 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개성, 자율성, 창의성, 교양과 덕성을 갖추어 세계화 시대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편되었다.

중학교 미술교과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미술 관련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미술과 관련하여 보면 미적 체험에서는,

첫째, 자연의 아름다움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 자연과 조형에서는 자연관찰에서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어 자연미와 조형미가 조화되도록 보여준다.

셋째, 생활 속의 조형미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조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표현에서는,

첫째, 생활환경 표현에서는 환경 벽화 꾸미기, 우리 학급 꾸미기, 게시판 꾸미기 등이다.

둘째, 여러 가지 물건 이용하여 만들기는 다양한 재료, 폐품 활용 만들기, 여러 가지 재료로 나타내기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상에서는,

환경관련 미술품의 감상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표현의 예시에 나와 있는 작품이 있을 뿐이다. 현대의 미술에서 환경미술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에 관한 작품을 감상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환경미술교육으로 우리의 미술문화 유산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교과서의 환경미술 관련 영역별 연계성은 미적 체험에서 아름다운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과 조형에서 자연의 조형을 발견하여 생활 속의 조형미에서 우리의 생활에 조형미의 생활화를 하도록 연계성이 잘 되어있고, 표현에서 첫째, 환경 꾸미기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우리 학급 꾸미기, 실외 환경에서 벽화 그리기 등이 있고, 둘째, 여러 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만들기에서는 폐품과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들기,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가 있으며 감상에서는 환경미술작품들이 거의 없는 설정으로 이 부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중학교 교과서 공공미술 관련 단원과 지도내용 영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7차 교육과정(1학년) 환경미술의 지도내용 영역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을 기본으로 소단원은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조형, 생활 속의 조형미이다. 지도 내용은 자연의 아름다움, 사계절의 아름다움, 자연관찰에서 조형의 아름다움,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생활 속에서 조형의 아름다움이다. 표현영역은 소단원이 생활 환경표현, 생활주변 풍경, 여러 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만들기이며 지도내용은 환경꾸미기, 표지판, 포스터 그리기, 풍경화 그리기, 폐품활용 다양양한 재료로 만들기, 자유 창작, 캐릭터 표현이다. 감상영역은 소단원이 환경 미술로 환경조각, 환경 미술제, 환경 벽화, 환경 건축이다.

최근 공공미술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1997년 광주비엔날레의 '도시의 꿈 ;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수창초등학교 학생들의 작업처럼 초등학생들이 공공미술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시적이고 일회적인 체험에 그치고 있다.

또 제7차 미술 교과의 단원이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생활 주변의 미술이 많이 소개되어 공공미술의 이해에 관한 가능성이 보여지나, 공공미술과는 접근 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공공미술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참고 표) 중학교 3학년 (주)지학사와 (주)두산의 미술교과서

출판사	영역	교과서 쪽수	단 원	학 습 내 용	제작방법 및 예시작품
(주) 지학사	미적 체험	4-5	자연과 조형의 아름다운	시대와 지역에 따른	▶독도일출작품(이종상)과 독도전경 ▶우리나라 전통정원(창덕궁후원의 부용▶지와 주합루)

			체험	자연과 조형물	▶일본의 모래정원(교토 용안사) ▶유럽의 정원(바티칸 정원) ▶트레비 분수(이탈리아 로마)
		10-11	과거와 현대의 환경조형 물	여러 나라의 환경조 형물	▶영제교와 해태상(조선) ▶슬라이드 만돌라(이사무 노구치/미국) -이탈리아 밀라노시 소재 ▶공원의 무지개분수(경기 부천 원미구) ▶학교환경 조형물 계획도(학생작)
		30	다양한 현대미술	대지 미술	▶나선형의 방파제(미스드슨/미국) -현무암, 석회암, 흙 ▶계곡의 커튼(크리스토/불가리아:미국) -천, 철사, 끈 ▶바람(이승택) -나무에 비닐끈
	표현	46-47	생활환경 꾸미기	생활환 경을 용도에 맞게 꾸미기	▶공원의 환경조형물(경기 고양) ▶주택벽화(이경복) -인천 옥련동 ▶화려한 조명의 남대문의 야경(한국) ▶재활용 재료로 꾸민 실내 공간(한국)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한국) ▶학교벽면의 벽화계획(학생작) ▶나의 방 단장을 위한 모형(학생작)
		6-7	미술과 생활	미술과 생활 환경	▶과천 중앙 공원(경기도) ▶추사 김정희 고택의 사랑채(충남예산) ▶TV정원(백남준/한국):식물, 모니터 ▶스트라빈스키의 샘(팅겔리/스위스, 생팔/프랑스):철, 폴리에스테르 수지
	(주) 두산	표현	52-53	쾌적한 생활을 위한 디자인	실외 환경 디자인

				르트 ▶인천공항 공중전화부스와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의 가로 시설물 ▶유치원 놀이 공간 디자인(학생작)
		54-55		▶슈퍼 그래픽 -사계절(샤갈/러시아:프랑스):도자 모자이크 : 시카고 제일연방은행 광장 환경조형물 -지하철 프로젝트2001:서울지하철 1호선 바닥그림 -협동하여 교각에 그림그리기 과정

### 3. 미술교과 속의 공공미술의 다양한 방향

“입시위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공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자리가 점점 협소해지는 상황에서 미술교육에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 도입과 진지한 성찰을 통하여 오히려 위기에 빠진 공교육 전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sup>38)</sup>

공공미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건전하게 승화하며 다른 학생과 협동심을 키우고 자신의 힘으로 미술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데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간형으로 점차 바뀌어 갈 수 있다.

38)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교육위원회,(준)시각문화교육분과, 미술교육 개혁을 위한 1차 토론회, “미술교육운동의 성과와 미술교육의 문제 그리고 대안”, 2002년 10월 12일, 발제문 박찬국(작가, 한성대 강사)‘공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의 문제와 대안’ p12~19.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제 학업에 도움이 되는 집중력이나 자기 표현력을 많이 향상 시킬 수 있다.

충청남도의 안면도 안면중학교의 김인규 교사의 '산길 프로젝트'는 공교육에서 시도되어야 할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산길 프로젝트'의 수업은 2002년 등갓길을 문화공간으로 꾸미는데 나무 벤치 설치, 산길 영상제작 등이다. 이는 교사중심 활동이 아니라 학생중심 활동의 교육으로 학생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 프로젝트 학습은 공공미술의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과정 중심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새로운 차원의 교과 교육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도시의 각종 빌딩이나 조형물 등의 인공 환경은 인간에 의해 조형되었지만 일단 형성된 다음에는 인간의 의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강한 외적 물리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써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서부터 출발하여 생각을 깨우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바로 잡아주는 올바른 미적 교육을 한다.

인간의 정서나 환경은 무시되고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개발되는 도시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주어진 환경을 그저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도시환경이 특정인이나 소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서적 충족감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을 학생들이 알게 하고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공공미술교육은 도시환경이나 공공미술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

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인주의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에게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생각하게 하고, 측정기준이 없지만 시각적인 환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도시의 환경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장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도시환경의 문제점 찾을 수 있는 안목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V. 결 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수업은 현 시대사회의 흐름에 적합한 변화가 있어야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통해 미적 정보를 선택하고 읽어낼 수 있는 올바른 시각적 이해능력을 키워 주는 수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술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과 생활 속의 미술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미술을 통한 삶의 방식과 미술을 통한 문화사회의 이해, 미술을 통한 삶의 방식 전개, 미술을 통한 사회경제의 변화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미술교육의 보다 큰 역할인 것이다.

공공미술과 도시환경미술은 미술과에서 가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영역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환경미술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에서의 공공 미술을 연구해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로 도출된 다음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소재로 삼아 생각하고 표현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미술을 더욱 친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인간에게 유익한 아름다운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숨을 쉬고 살면서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늘 함께 하는 도시의 환경이 미술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다거나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미술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늘 함께 숨쉬고 있는 것이고 갤러리에 전시되는 것이나 물감으로 그리는 것만이 아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미술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사고의 확장을 가져왔

다.

공공미술은 그 특성상 그것이 설치되는 장소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장소의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곳의 풍토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공동체나 단체의 고유한 성격을 전달하게 된다. 이는 단조로운 도시 공간에서 주민과 그 공간에 독자적인 정체성을 줌으로써 도시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한다. 또한 도시민에게는 자긍심을 그리고 장소에는 개성을 부여함으로써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하고 그것에서의 이벤트나 문화 또는 역사적 개념들과 상호 연관된 호기심을 제공하며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갖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민과 예술을 연계하여 주변 환경을 보다 고상하고 가치 있는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정서적 여유와 예술적 분위기를 진작하여 도시 생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창조적 사고의 촉진과 원활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삶의 질을 고양하게 된다. 그리하여 예술은 예술가와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미술은 이와 같은 시각적 · 장소적 측면 외에도 단조로운 도시 공간을 강조, 분절, 변화하여 도시 공간에 활기를 주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이해의 기능과 그 장소에 적합한 분위기 조성으로 장소적 특성을 강화시켜주며, 도시 공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부조화된 도시 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준다. 또한 어릴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공공미술은 삶의 질적 환경을 개선시키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공공미술과 도시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공미술과 도시환경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주변의 미술과 도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시각을 키워 나아가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박삼철,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2006.
- 장소현, 『거리의 미술:민중을 위한 민중의 미술:도시벽화』, 생각의 나무, 1997.
- 맬컴 마일스, 박삼철 역, 『미술, 공간,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학고재, 2000.
- 『2006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Living Furniture Public Furniture)』, 아트북스, 2006.
- 윤난지, 『현대 미술의 풍경』, 한길아트, 2005.
-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예경, 1993.
- 곰브리치, 백승길 역, 『서양미술사』, 예경, 2003.
- 니코스 스탠고스, 성완경 역,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 루이스 면포드, 김문환 역, 『예술과 기술』, 을유문화사, 1975.
- 임영방, 『누구를 위한 환경조각인가』, 계간미술, 중앙 일보사, 1986, 제37호

### 정기 간행물

- 박신의 「스텔라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아마벨」 월간미술 1999년 8월
- 전혜숙 「세라의 공공조각과 장소 특수성」 현대 미술사 연구 10집
- PUBLIC ART ( 퍼블릭 아트 ) 명문사
- 월간 미술 (2004년 11월호)

## 기사

- 최은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도시와 미술] 서울 삼성동 포스코  
광장‘아마벨’」 조선일보 2006. 1.24
- 준호이, 「[도시와 미술] 건물을 감싼 ‘시민들의 작품’」 조선일보 2006. 4. 4  
「공공미술 베스트 5」 한겨레 2006. 5. 16
- 강혜승 「Zoom in 서울 내집앞이 미술관」 서울신문 2006. 9. 29
- 이호기 「거리 곳곳에 조각품·건물벽엔 벽화…서울 전체가 미술관으로」 한  
국경제 2006. 9. 28
- 윤민용 「산비탈 동네가 미술관으로 ‘아트인시티 2006’」 경향신문 2006. 9.  
28
- 조채희 「공공미술로 동네를 바꾸자」 연합뉴스 2006. 9. 30
- 이원정 「마산 부림시장에 그림을 그리다 - 프로젝트 쏘, 이달 한달간 ‘재래  
시장-행복시장’ 작업」 경남도민일보
- 김주성 「일상에서 축제만들기- 아파트 갤러리 프로젝트 2」
- 방국진 「동화 가득한 담장, 향기나는 꽃길」 내일신문 2006. 2. 1
- 고선주 「주부들의 생활 읽기’전 -북구문화의집 아파트갤러리 프로젝트 2」  
광남일보 2005. 12. 18
- 문화계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교육위원회,(준)시각문화교육분과, 미술교육 개  
혁을 위한 1차 토론회, “미술교육운동의 성과와 미술교육의 문제 그  
리고 대안”, 2002년 10월 12일, 발제문 박찬국(작가, 한성대 강사)‘공  
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의 문제와 대안’
- 성완경 「공공미술과 대중 참여」 (서울: 가나아트, 1996년 7,8월 호)
- 양현미, 「공공 근로 사업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  
문화정책개발원, 1999

## 웹 참고 자료

『공공미술 프리즘 홈페이지』 <http://www.free-zoom.com/main.php>

『퍼블릭 아트 홈페이지』

<http://www.publicart.co.kr/service/intro/intro.php>

『청계광장 공공미술 대책 위원회』

<http://cafe.naver.com/cgpublic.cafe>

『아트 인 시티』 <http://www.artincity.org> /

『공공미술 프로젝트 쏘』 <http://cafe.naver.com/projectssoul.cafe>

『북구 문화의 집』 <http://www.munhwahouse.or.kr> /

『열개의 이웃』 <http://cafe.naver.com/publicart10.cafe>

『부산 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www.busanbiennale.org>

